

# 영암군 군민주치의 제도, 이용 주민 98% 만족

## 만족도 조사서 답변... 2만5,885명 돌보고, 뇌졸중 어르신 골든타임도 사수

영암군민주치의가 만족도 98% 등 영암 주민의 압도적 신뢰 속에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

14일 영암군이 지난해 11/3~12/24일 진행된 167명이 답변한 '군민주치의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민주치의는 교통 불편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마을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찾아가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 교육도 진행하는 민선 8기 영암군의 대표 건강 정책.

지난해 3~11월 영암군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로 구성된 23개 팀 의료진은, 매주 수요일 410개 마을경로당을 총 665회 찾아가 2만5,885명을 돌보는 군민주치의 사업을 실시했다.

이 군민주치의 제도를 경험한 만족도 조사 답변자 100%가 '군민주치의 필요한 서비스인가'라는 물음에 긍정 평가를 내린 것.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는가' '군민주

치의사업에 만족하는가' '군민주치의의사에게 만족하는가' 등 항목에도 모두 98%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는 긍정 답변을 내놓았다.

'받고 싶은 서비스는' 항목에서는 운동·영양·치매예방 순으로 답했다.

5월에는 군서면에서 군민주치의가 마을 경로당에서 진료하던 중 80대 여성 어르신의 뇌졸중 전조 증상을 발견해 곧바로 의료기관에 연계해 골든타임을 지켜냈다.

10월에는 도포면에서 혈압 관리가 어려운 70대 어르신을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현재까지 사후관리가 이어가는 등 군민 생명 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영암군은 군민주치의 제도가 정기 건강 상담, 맞춤형 건강 관리로 영암주민의 자발적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친밀한 의료 공동체 구축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도 1월 내로 '2026년 군민주치의



운영 계획 수립'을 거쳐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생활공간 가까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군민주치의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군민주치의는 각 마을에서 △건강증진 사업 및 보건교육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 △건강생활실천법 전파 △치매 조기 검진 △국가 암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석곡농협, 신제품 '아리랑 쌀' 유럽 첫 수출

### 곡성 쌀, 유럽 시장 본격 진출... 수출 다변화 교두보 마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4일 관내 소재한 석곡농협 백세미 방앗간에서 '아리랑 쌀 유럽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곡성 쌀의 2026년도 첫 해외 수출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적식은 석곡농협이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쌀 '아리랑'의 유럽 시장 진출을 기념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전라남도의원, 곡성군의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농업협곡성군지부 관계자 등 지역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아리랑 쌀 10톤으로 유럽 내 판아시아 유통망을 통해 현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번 수출이 지역 쌀의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유럽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곡농협은 그간 꾸준한 쌀 수출 실적을 이어오며 해외 판로를 확대해 왔다. 2024년에는 약 480톤, 2025년에는 약 40톤의 쌀을 해외로 수출했으며, 곡성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아리랑쌀을 시작으로 수출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선적식 행사는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출 상차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곡성 쌀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유럽 수출은 곡성 쌀의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 다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쌀 브랜드 육성과 해외 유통망 연계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 완도군, 노화 넘도 가뭄 대책 회의·현장 점검 실시

### 해수담수화 추가 증설, 비상 용수 공급 등 군민 불편 최소화 총력

완도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가뭄 대책 TF 회의'와 노화읍 넘도 수원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 완도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처별 역할 및 추진 상황 점검, 종합 대책을 공유했으며, 현재 생활용수 가뭄 관심 단계 지역인 완도군 노화읍 넘도제와 해수담수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노화읍 넘도제의 경우 지난해 평균 강수량 대비 66%로 넘도제의 저수율은 1월 13일 기준 15.42%, 용수 공급 가능 일수는 82일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은 노후화로 일 사용량(최대 250톤)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군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해수담수화시설(해수 전용) 추가 증설(150㎥/일) 및 철부선 1대와 급수차 4대를 동원, 일 180톤의 비상 용수를 공급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진희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



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시 지역의 용수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보길·노화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679억

원을 투입해 '급수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해남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상수관로 35.8km(육상 24.9km, 해저 10.9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등 시설 용량 1,000㎥/일의 시설을 설치한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은 15일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상급병원 원스톱 진료 연계 서비스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등 응급 의료 체계 유지·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해 2월 보성아산병원과 중증 환자 원스톱 진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과 진료 연계가 가능한 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보성군, 중증 환자 원스톱 연계 서비스

### 응급의료 체계 유지·강화 실질적 대응 추진

해당 서비스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판단부터 진료 의뢰, 전원 결정, 이송까지 전 과정을 단일 절차(원스톱)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성아산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증 환자 전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월평균 1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진료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상급병원 진료까지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과 달리, 해당 원스톱 연계 서비스를 통해 평균 2~3주 내 진료가 이뤄지면서 치료 접근성과 환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보성군은 2026년부터 응급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 자체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응급의료기금 이외에 관내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응급실 운영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 현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스톱 연계 서비스와 응급의료기관 군비 추가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 진도군,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민원인 웃음 가득!

### 복합민원 처리 1:1 상담 지원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 강화

진도군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1:1 전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노약자, 장애인 등)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1월 1일)에 따라 민원후견인(7명)을 정비했다.

민원후견인은 세밀한 민원 상담,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검토, 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해 준다.

또한, 활동 완료 후 에 활동일지를 작성

해 민원후견 활동의 기술(노하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원인의 민원 처리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행정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신뢰 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장애인 편의기능 무인민원발급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민원처리 사전예고 5일제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2025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오는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